



포대 제조용 합지개발

독자적이고 창의력 있는 개발 위해 힘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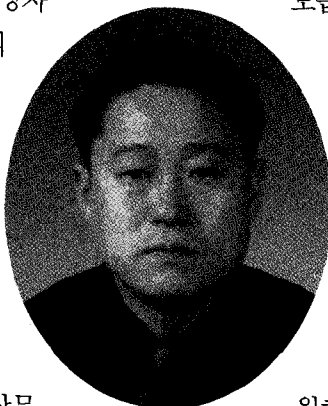
정혁래 / 신덕산업(주) 관리부 계장

이번 제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중 정혁래 신덕산업(주) 관리부 계장이 연구개발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혁래 계장은 “먼저 이렇게 큰상을 주신 한용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이 있기까지 몰심양면으로 힘이 돼 주신 저희 신덕산업 최구화 사장님과 방봉진 상무님 이하 여러 임직원 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특히나 정혁래 계장이 수상을 하는데는 최구화 사장의 힘이 컸다고 한다.

“저의 사장님께서서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독자적이고 창의력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이나 현재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최고의 제품생산에 주력하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의 목표로 삼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혁래 계장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물신 풍겨 나왔다.

정혁래 계장은 포대제조용 합지를 개발, 골심지를 이용한 크라프트지를 대체해 폐지 재활용 측면에서도 획기적이며 파대 발생이 없고 방수효과가 탁월해 장기간 보관해도 내용물의 변질

이 없다.

“이번에 제가 개발한 것은 2장의 골심지 사이에 보강수단으로 합성수지사 등을 망사형태로 삽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성접착제로 접착해 제조한 중포대 및 경포대용 합지입니다. 이번 개발한 합지로 제조한 포대는 강도나 기타 물성면에서 크라프트지 포대 못지 않은 특성을 지닙니다. 더군다나 파대의 발생이 거의 없고 시멘트 팩킹시 분진의 발생이 감소되며, 골심지 경합제로 사용된 합성수지의 피막형성으로 인한 방수효과가 탁월하여 장기간 보관시

내용물의 변질이 없습니다”라며 “최근에 와서 크라프트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적으로 재활용기술을 개발해 효율 및 재활용 범위를 넓혀 가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고자 골심지를 이용한 포대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혁래 회장은 컴퓨터를 전공, 포장과 맺은 인연은 신덕산업에 입사하면서부터 불과 1년여의 짧은 시간이지만 포장에 좀 더 깊숙이 빠져들수록 더욱더 흥미롭고 무궁발전의 여지가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현재 정혁래 회장은 신덕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관해 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신제품 생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적 여유를 갖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기에 정혁래 회장은 “직원들간의 단합은 신덕산업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너와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다업무로 인해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며 현재 자신의 역할에 만족한다고 한다.

정혁래 회장은 현 포장에 대해 “국내 포장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저나 포

장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현재 자신들의 자리를 빛낼 때 포장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환경을 생각한 발전이라면 한차원 높은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라고 피력했다.

한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꾸준한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 회장은 현재 신제품 개발을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저의 개인생활은 잠시 접어두고 연구에 몰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항상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혁래 회장은 “포장분야는 동업계간의 교류가 너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경쟁자라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함께 헤쳐 나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작은 촛불 하나가 큰불을 일으키듯이 정혁래 회장의 노력이 비록 지금은 작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조금씩 쌓아진다면 포장의 밝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권해진 기자